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

(에 7:1-3)

Entreaty for a Nation and Its People

(Esth. 7:1-3)

기독교는 애국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바와 같이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며, 비서명자 48인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우리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건강과 일터를 위해서는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Christianity is a faith of patriotism. As we already know, there were sixteen Christians among thirty three people who signed and sealed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In addition, twenty-four Christians among forty-eight people who did not sign and seal it took part in our independence movement. The Bible teaches us patriotism. To pray for one's nation and its people is not an option. It is God's command.

We diligently and earnestly pray for each person, family, health and workplace. But there are a few people who fast and pray for their nation and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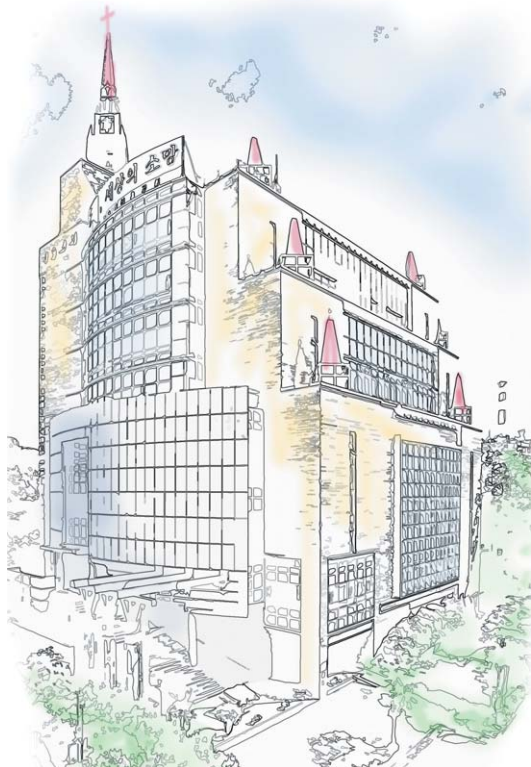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에스더의 요청대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sther fasted and prayed for her nation and its people for three days, before she went to the King. Though Esther was in the situation where she was not able to go to the King, after she prayed, she went to the King at the risk of her life. It wasn't easy for King Xerxes to spare Jewish people as Esther's requested.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4절).

“For I and my people have been sold for destruction and slaughter and annihilation. If we had merely been sold as male and female slaves, I would have kept quiet, because no such distress would justify distributing the king” (v. 4).

‘내 민족이 팔렸다’는 것은 하만이 내놓은 은 일만 달란트에 팔렸다는 것을,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왕이 자기 반지로 인을 친 공식 조서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만 달란트를 받은 것도 왕이고, 자기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 누구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바로 왕입니다.



이제 그 조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 문서가 변경 될 때에는 잘못된 문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에 하만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The word, ‘My people were sold’ mentioned as Haman sold them for ten thousand talents of silver, and ‘My people have been sold for destruction, slaughter, and annihilation’ mentioned as an official decree on which the King sealed it with his own signet ring.’ In other words, it was the King who received ten thousand talents of silver from Haman, and it was the King who sealed it with his own signet ring so that no one could change it.

Now, there was only one way to change the official decree. It had to be written and sealed by the King's signet ring again. However, when the official decree is changed, someone must be responsible for the incorrect document. In the process of this, Haman should be hanged on the gallows. Haman fell into his own trap because originally he had prepared the gallows to kill Mordecai.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개인의 안전이나 부요함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When Esther fasted and petitioned God it was not for her private security but for her nation and its people. It is acceptable to pray for our own security. However, when we pray for our nation and people is much more gracef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나라는 재난에서 보호를 받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I hope you will earnestly pray for your nation and people. If we pray to God, He will answer us, and the nation that receives God's response will be protected from disasters, and recovered by the real peace and prosperity. The rise and fall of a nation is in the hands of God.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Just as Esther prayed “If I perish, I perish.” for her nation and its peopl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blessed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5월 19일(주)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이번 달 스데반회, 제1, 2권사회 월례회모임 시 장로후보선출-

오는 5월 19일(주) 서울교회 제12대 장로, 제13대 안수집사, 제12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한편 당회가 직접 공동의회에 후보를 제출하는 안수집사, 권사와는 달리 장로의 경우에는 제직회에서 공동의회에 제출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제직회에 제출되는 장로후보에 대하여 당회는 그동안 기존 안수집사와 권사 전원을 후보로 제출하여 왔으나 안수집사와 권사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정기당회를 통하여 올해부터는 제직회에 안수집사와 권사별로 당해년도 장로선출예정인원의 각 10배수만 제출하

기로 하면서 그 후보선출을 해당 자치조직인 스데반회와 제1,2권사회에 위임하기로 하되 총 투표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부족한 숫자는 당회에서 추가하여 안수집사, 권사별로 기수별, 연령순에 따라 제직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달 스데반회와 제1,2권사회가 각 월례회로 모이는 기회에 위 장로후보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니 스데반회와 제1,2권사회 회원 전원, 특히 개별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잘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협력하기 바란다.

카자흐스탄 Vision Trip 참가신청

우리교회는 2013년 Vision Trip Team(지도 서명철 목사, 단장 이준호 집사)의 선교지역을 카자흐스탄으로 정하고 8월2일부터 8월9일까지 7박8일 동안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따라즈미르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경비는 1인당 약 150만원으로 자비량이며, 모집대상은 의료팀 및 청소년사역팀 총 25 명이다. 참가를 희망

하는 성도는 4월21일까지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이 강한 나라로서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 Vision Trip을 통하여 헌신적인 치료와 청소년 봉사를 수행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확신한다. 카자흐스탄의 Vision Trip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2분기 섬김위원 추가임명 명단

▶ 예배위원회

- 1부 헌금 위원 : 박충구
- 2부 헌금부장 : 장양일
- 위원 : 한길동 박영옥 이미연 강명심 박윤옥 이화숙 유덕자
- 2부 안내위원 : 진교인 최성미 황영희 김순진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찬양대 : 문수현 진형곤
- 할렐루야 찬양대 : 김재준 1 이주랑
- 임마누엘 찬양대 : 김민철2 김요한 박상훈 배석훈 백기선 오 유록 옥종호 최 읍
- 호산나 찬양대 : 김태희4 이현경2
- 시온 찬양대 : 박수련 윤수엽 이성화 정종화 최보희 최영민1
- 은빛 찬양대 : 문가자 이상정 황정욱 문기자
- 예루살렘 찬양대 : 이한나5 정애선1
-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 김가현1 박찬희 안지훈3
- 아벤관현악단 : 기현경 김성욱4 이준호4 정문곤

▶ 교육위원회

- 유아부 : 송명원 이희영4 정승균 허희선
- 유치부 : 강일랑 박선영12 신민숙 유남근 장지윤1
- 초등부 : 손형린
- 꿈나무 영어성품스쿨 : 권소희 김성은5 류한희 박길희 박지현3 오소정 우승희 이충원 임미경1

· 고등부 : 김은연 박연정 유건호

- 청년2부 : 이계자
- 에바다부 : 경기현 김혜경3 이병천 조미영
- 소요리문답부 부감 : 임우택 서경애

▶ 교구위원회

정동화 남영주(7교구 간사) 윤필관(1-4 부다락방장) 김희옥(1-8 다락방장) 유선희(1-8 부다락방장) 윤미숙(1-17 다락방장) 김연화(1-17 부다락방장) 이서연(1-18 부다락방장) 강택근(2-2 다락방장) 이경수(2-2 부다락방장) 한은영(2-4 부다락방장) 한은미(3-8 다락방장) 전광환(3-8 부다락방장) 진교숙(3-21 다락방장) 이재순(3-21 부다락방장) 김고은(11-2 다락방장) 조정옥(11-8 다락방장) 이인선(12-11 다락방장) 권희순(12-11 부다락방장) 유형숙(13-28 부다락방장) 최준숙(13-33 다락방장) 전영미(13-33 부다락방장) 홍현미(15-6 부다락방장) 김혜란(15-9 부다락방장) 박종녀(15-10 부다락방장)

▶ 전도위원회 - 70인전도대

- 축호팀<사랑팀> : 박계진 장기숙 이승자1 황국희
- 축호팀<자비팀> : 안현남 남경혜
- 축호팀<희락팀> : 김수양 정호희
- 수요노방팀 : 박복순
- 목요기도팀 : 허현숙 김혜중 - 화요기도팀 : 김은희9

동남아시아 현지인 선교사 추가 파송

교회는 동남아시아 현지인 선교사 16명을 추가로 파송한다. 선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Rev.Lianmang Cinzah, Hlei Sung, Nan Lwin, Thang Lian Khup, Thandar Khine Oo, Saw Gway Htoo, Ki Om Long Yah, Hrang Than Tiam, Hla Hgwe, Ch. RaBie, J. Benjamin, Bie Lau, Hla Maung, Cha Hla, Zaw Ling, Michael Thang Khan Vung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

4월 10일(수), 오후 7시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이 서울교회 비전 2020 운동본부(부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10일(수) 오후7시 육사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오후 4시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2010년 육군 사관학교 진중세례식

2013년 장한 어머니상 시상

4월 30일(화)까지 신청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부모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성도로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2년 5월 1일부터~2013년 4월 30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장학금 통장을 5월 12일에 시상한다. 해당되는 어머니는 4월 30일까지 교구지도목사에게 신청바란다.



지난 주 부활절을 맞아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 찬찬식을 거행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2013년 순결서약식을 거행하였다.

사진 : 손동혁 집사 (편집부)

순례자 특별 기고

신앙적 애국 (愛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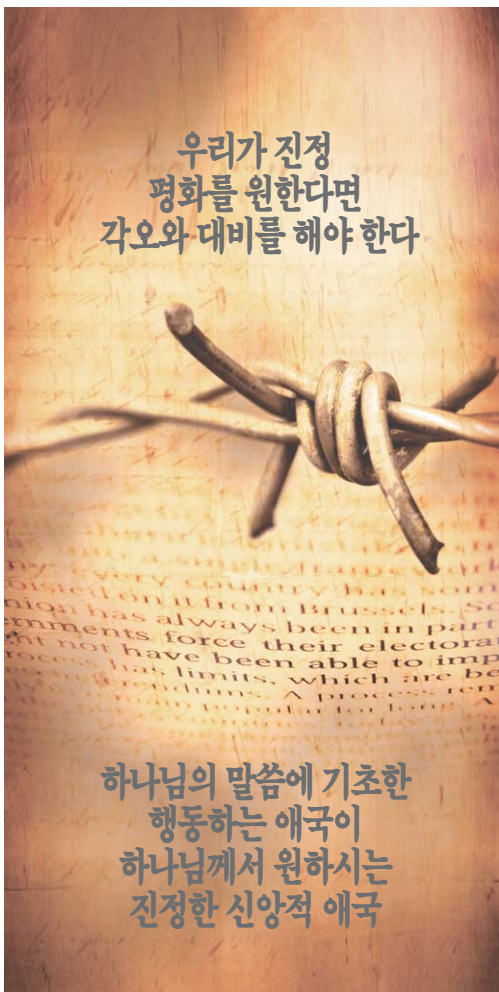
이갑진 장로
(Vision 2020
운동본부 부장)

성경의 모범적 리더들은 모두 자기 민족과 국가를 끄떡이도 아끼는 애국애족의 리더들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이, 성군 다윗이,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모두 그랬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야그립바 왕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끓는 애국애족의 고백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애족의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또한 신앙적 애국을 잘못된 백성들을 어떻게 벌 주시는지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타락, 안보불감증이라는 민족적 범죄로 주변강국의 침략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나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반복적인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무능한 왕들과 교만한 신하, 우상의 앞잡이가 된 왕비, 권력에 야합하고 악에 물든 백성들로 인하여 결국은 망하였다.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바빌론의 포로로 살다 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극이 어찌 구약시대만의 일이라 하겠는가? 핵을 앞세운 북한의 전쟁위협과 공갈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차제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앙적 애국심으로 뭉쳐야 할 때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



는 공산주의와 결코 야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오늘날 우리를 파괴하는 바알은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의 신상을 때려 부숴듯이, 우리도 저들의 도발에 대처해야 한다. 평화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의 대가까지도 지불할 수 있다는 각오와 대비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거저 얻은 평화가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싸웠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 가나안 정복이 그랬고,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의 전투가 그랬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의 난국을 대처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사명 중의 하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신앙적 애국심으로 무장되게 하는 일이다. 내 가족, 내 교회가 있는 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비전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자. 전쟁기념관을 견학하여 전쟁에서 이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휴전선 철책선 앞에 나아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동하는 애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적 애국이라 믿는다.

빈약한 자 구제

더 낮은 자세로, 작은 이들의 벗으로...



선순례 권사
(14교구)

부활은 새 생명의 상징인 듯 바람 끝이 상쾌합니다. 연둣빛으로 움트는 대모산과 구룡산이 꺼안고 있는 구룡마을. 이곳엔 아직도 1,230 가구라는 판자촌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14교구 장로님을 비롯하여 간사님들이 이곳에서 자장면 봉사를 했습니다. 일 년이면 몇 번씩 자장면 봉사를 다니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라 손발이 잘 맞아 열심히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한쪽에서는 야채를 볶으며 모두 바

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곳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들도 우리의 손길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들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자치회 사무실에서는 '자장면을 준비하고 있으니 모두 나와서 드시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4~50년 전 시골 마을에서나 들었던 방송. 시간이 되자 많은 어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도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 짚고 옆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의자에 앉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면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4교구 황광 목사님과 배경애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하시고 한바탕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백여 명이 드셨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파 못 오신 분들과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들을 기억하고 직접 배달해 드리겠다고 챙겨 들고 가는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님의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듯 그들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낮은 곳에 더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즐거움은 감사하며 겸손한 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

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낮아져야 어려운 이웃이 내 눈에도 보인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대모산 구룡산을 수 없이 오르내리면서도 열악한 환경의 판자촌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14교구도 모이기를 힘쓰는 다락방이 되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시민양성-소요리문답부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 소요리문답



김병화 집사 (소요리문답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든 개신교와 가톨릭은 무엇이 다른지, 같은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는 감리교, 침례교 등 다른 종파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주위에 흔히 보이는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물음들을 한번쯤 풀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고 개혁주의 장로교 교인으로서 기초체력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곳이 소요리문답부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져 칼빈주의 개혁과 신앙의 기준이 된 <웨스턴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총 107개의 문답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이란 무

엇이며,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이며, 성경이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지와 같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주제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날 범람하는 성경적 지식 가운데 가장 역사에 바탕을 두면서 체계적, 신학적, 이성적인 바른 신학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수록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 그 첫걸음을 소요리문답부에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주일 2부 예배 후 (12시 40분-1시 30분) 601호로 오세요.

2013 농어촌100교회 후원현황

(단위: 원/월)

번호	노회	교회	교역자	지원액	후원자
1	경안노회	새별교회	조병수 목사	100,000	박노철(김은경)
2	경안노회	광음교회	임숙화 목사	700,000	이훈,박찬성(심명숙),박내길(오경숙),박옥
3	경안노회	신전교회	김수만 목사	600,000	이강진(이신영),김철진(노의경),전봉길(임신영),최항봉,한건수(유인순)
4	경안노회	대일교회	안세광 전도사	400,000	오윤걸,방계운
5	경안노회	명제교회	박경용 목사	500,000	김경애,김원중(이갑연),김장섭(최춘숙),이상욱(장정자)
6	경안노회	산야교회	이형근 목사	800,000	김혜수(윤운),이성우,문금희,김관규(유혜연)
7	경안노회	하국목교회	장태환 목사	700,000	이희민(이경실),김형상(최금숙),김광민(박민수),배옥선
8	경안노회	청기교회	김영환 목사	500,000	바울,윤동수,김명옥(오은경),이상섭,김주연
9	경안노회	노달교회	서동일 목사	500,000	김만길(이영자),한승철(최미아),인재성,김요섭(이인숙4)
10	경안노회	연계교회	김수진 전도사	800,000	스데반,김혜연(박은영),노송성(이영옥),이영기(이영숙),오명걸,황병석,이상호2
11	경안노회	화곡교회	백영주 목사	500,000	스데반,이남성(최영란),오경수(이영희),하영수,강석조
12	경안노회	시안교회	구장희 목사	500,000	스데반,김진화(전현주),김지삼,이원일(장기숙),이윤미
13	경기노회	안중주안교회	송영국 목사	500,000	제1권사회,김영준(박태희),허경화
14	강원노회	신일교회	이용운 목사	600,000	도르가,이승영,김재근(안분선),이우식(조부자),황선옥,유승희
15	강원노회	작실교회	허만준 목사	500,000	루디아,안홍진(전화진),오지열(하숙),이은미(유현주),전시경
16	강원노회	금대교회	유용수 목사	800,000	하나, 박종권(김희경),김성준(김선영),김재중(김유경),리브가,김권집(왕경애)
17	강원노회	공영교회	이혜민 목사	700,000	제1권사회,노문환,임상현,이현수(조희)
18	강원노회	고향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700,000	마리아, 장윤기(노애리), 민혜정,정성규(김명실),오유식
19	강원노회	나전중앙교회	이주형 목사	500,000	마리아,임광호(김명기),주화인,박경정(이인보),경수진
20	강원노회	서흥교회	김광근 목사	500,000	비비, 김희열(유승리),구본혜,이지동
21	강원노회	월송교회	남금준 전도사	600,000	사라,경진문,송인덕,김선태(김유숙),김선자
22	강원노회	춘천동산교회	김장부 목사	600,000	에스더,이호(김민애),원영희,박정자
23	강원노회	가정리교회	이영기 목사	600,000	에스더,이홍복,최광성,김중찬(권명희)
24	강원노회	화방교회	김인동 목사	700,000	하나,이순형,송재현(선순혜),신영신
25	강원노회	은퇴목사	박영곤 목사	200,000	김정곤(김수정)
26	땅끝노회	강진서산교회	김상범 전도사	600,000	신용식(김신영),김주현(권은주),전광영(김인숙)
27	땅끝노회	청산동부교회	조인강 목사	700,000	황난옥,염혜영,노병희(방덕자)
28	땅끝노회	송광교회	김상도 목사	500,000	김금준(이현주),하국수(조영자)
29	땅끝노회	남전교회	김성률 전도사	800,000	엘리아,노계현(김경희),임홍수(하옥봉),김이세(임송자),박찬희
30	땅끝노회	만년교회	김형석 목사	200,000	고경원(박윤옥)
31	땅끝노회	칠량중앙교회	공현섭 목사	300,000	김윤숙, 안혜경,마종량,박경선
32	땅끝노회	백일도교회	김완진 목사	300,000	이준호(이은희),이민희(신순자),강낙훈(심삼희)
33	땅끝노회	무교교회	김옥배 목사	300,000	김용환,김영실,박석현(김정숙),최지옥
34	땅끝노회	덕호교회	박강원 목사	300,000	송동선,황현숙,김영주(이혜순),최원석(박길희)
35	전서노회	장금교회	윤영석 목사	900,000	이사,박경주,홍준기,김복녀,김혜정,임선철(이영주),임영숙,육순자,송지윤,홍석현
36	전서노회	북면중앙교회	김주철 목사	600,000	아브라함,호산나,김희옥,황선희,양지훈(최성진),윤경애,백승갑(박길자),박미경(노영석)
37	개인후원	빛나는 교회	이성우 목사	100,000	주동재(김동진)
38	개인후원	고향교회	김권환 목사	100,000	하인선(남태순)
39	개인후원	상촌교회	김길성 목사	100,000	차도훈(남태영)
40	개인후원	신현교회	유기종 목사	100,000	김상태(김숙자)
41	개인후원	별원교회	이후식 목사	100,000	임충식(신선주)
42	개인후원	백령도해병대	권혁민 목사	100,000	이갑진(박우주)
43	개인후원	대은교회	박태수 목사	100,000	양준경(이인숙)
44	개인후원	대동교회	한 영 목사	100,000	이복규(한명순)
45	개인후원	한국어린이전도회	최원장 목사	100,000	김동수
46	개인후원	해양교회	박용수 목사	100,000	노병호(홍지나)
47	개인후원	주은농성교회	강주혜 목사	500,000	無名
				21,100,000	

- 나눔의 집 -

나눔의 집에서는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남자 양복 및 구두 등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예루살렘찬양대(대장:김인수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심상희 권사의 지휘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드리나이다"(M.Teschner작곡), "내가 영으로 찬송하리로다"(J.Rutter작곡), "예수 나를 오라 하네(J.S.Nomis작곡)"의 세 곡을 연주한다. 오르간 김정희선생, 피아노 이승민 집사가 수고한다.

동정

- 개업: 흥성민 집사(12교구) 벽계수,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2405번지
- 개원: 영성증 집사(1교구) 드림한미음 재활의학과의원, 강남구 대치동 961번지 창진빌딩 1,4,5층
- 주간식당봉사: 한나 전도회(4.7) 에스더전도회(4.14)
- 금주의 식사: 오광환 장로 · 이안순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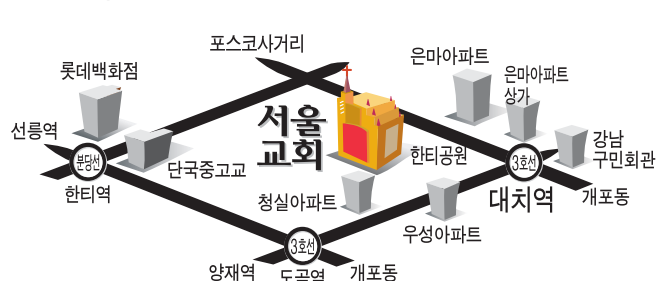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북한의 모든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악한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며,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중복 세력들도 사라지도록
2.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을 통해서 비전 2020운동을 위한 모든 기도가 이뤄지며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로를 얻도록
3. 2013년 항존직 선거를 위한 일정이 스테반회와 제1권사회와 제2권사회 월례 모임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용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